

대화와 존중으로 상생의 지혜 찾자

가정 내 종교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최근 '현대불교' 보도를 통해 알려진 서울 은평법당에 다니는 한 불자가 은평법당 사이트에 올린 '아들이 교회 간다고...' 글은 청소년 포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과 함께 가정 내에서의 가족간 종교 차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러한 종교 차이는 자칫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고 심각한 가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가정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종교 갈등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남의 일'로만 치부해 버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가정 내 종교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사소한 차이가 갈등의 '핵'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 갈등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가정 내 종교 갈등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작게는 가정 내에서의 일상적인 다툼과 반목에서부터 크게는 상해와 가정 파탄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는 심각하다. 실제로 각종 상담기관 관계자들은 가정내 종교갈등 문제로 상담해 오는 경우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고 말한다.

가장 심각한 종교 갈등은 부부간의 문제다. 가정 파탄은 물론 가족 간의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구의동의 A(33)씨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독실한 불자인 A씨 어머니는 며느리가 개신교 신자인 것을 알고 결혼을 만류했었으나,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속담대로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부터 일이 터지고 말았다. 결혼식 주례가 목사였고, 결혼식도 개신교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했던 일인지라 A씨 어머니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항의를 하자니 결혼식을 망칠 것 같고, 참고 있자니 화가 치밀었다. 양 집안의 종교를 존중해 종교적 의례는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일방적으로 깨진 것이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항의를 했지만 말 그대로 '항의'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것은 가난한 갈등의 시작에 불과했다.

결혼 뒤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A씨 부부는 종교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양가 마찰로 이어지면서 확대됐다. 평소 사위와 사위 집안이 불교집안이라는데 불만이 컸던 A씨의 장모는 A씨가 술에 만취해 늦게 귀가해 딸과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때리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유치장 신세를 지야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가족이 가만히 있

을 리 없었다. 양가는 대판 싸움을 벌였고, 결국 이혼 얘기가 오갔다. 하지만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을 안 A씨 가족은 결국 한 발 물러섰고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렇지만 이 일을 겪고 난 A씨 부부는 지금도 갈등의 불씨를 안고 살고 있다.

언제 또 터질지 모를 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다.

종교가 다르면 '제사' 모시는 문제도 갈등의 심각한 원인이 된다. 3년전 결혼한 B(37)씨와 부인 C(35)씨는 제사를 지내는 문제 때문에 사이가 벌어졌다. C씨는 시어

되는 부모님의 '꾸중'에 D씨의 고민은 깊어간다.

인생의 새출발을 앞둔 젊은 연인들에게 종교 갈등은 약재가 되고 만다.

최근 결혼을 전제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E(28)씨는 마음이 편치 않다. E씨 집안 종교는 불교였으나 남자친구는 가톨릭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E씨는 처음부터 남자친구가 성당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랑이 깊어지면 불교로 개종시킬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각자 다른 신앙생활을 해왔던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 황선정 사무국장은 "가족 간의 종교 갈등 해결을 호소하는 문의가 자비전환나 사이버 상담실을 통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불자들의 경우 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정 내 종교 갈등은 필연?

이와 같은 가정 내 종교 갈등은 종교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또 가족 각자의 종교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것도 종교 갈등의 한 원인이다.

70.9%로 드러났다. 각 종교별 일치율을 보면 불교인의 경우 부친 73.8%, 모친 80.6%, 배우자 74.4%, 개신교인 부친 47.4%, 모친 59.7%, 배우자 67.4%였다. 가톨릭인은 부친 28.9%, 모친 49.2%, 배우자 70.9%였다.

일반적인 여론조사라면 낮은 수치가 아니지만, 가정 내 갈등의 차원에서 보면 안심할 만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갤럽 이동욱 전문위원은 "가정 내에서의 종교일치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그렇지만 아직도 종교일치율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 내 종교 갈등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 배려하는 마음이면 충분

이와 같은 가정 내 종교 갈등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송기홍 변호사(前 서울 가정법원장)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 하다.

독실한 개신교 집안 출신의 부인과 결혼한 송 변호사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처가를 방문했을 때부터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그러나 불교를 종교로 갖게 된 이유



종교 자체로 보지 말고 '인간관계 문제'로 접근해야 “내 종교만 우월” 생각부터 버리길

머니의 제사준비가 '강요'로 다가온다. C씨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기 때문이다.

어릴때부터 단 한차례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 자체가 C씨에게는 부담이다. 제사문제로 생긴 고부갈등에 남편 B씨도 답답하기만 하다.

부모자식간의 갈등도 심각한 경우가 많다. 대학을 갓 졸업한 D(25)씨는 친구들의 권유로 사찰 정년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시작한 신생활이지만 다른 처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재미있어 누구보다 더 열성적으로 절에 나갔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딸이 절에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님은 "집안에 종교가 2개가 있으면 가정이 파탄난다"며 절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젊었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다. 계속

2004년 한국갤럽이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통계를 보면 가정 내 종교 갈등은 상존(常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현재 종교를 믿고 있는' 종교인은 53.5%로서 20년 전인 1984년의 종교인 비율(43.8%)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불교인 24.4%, 개신교인 21.4%, 가톨릭인 6.7%, 기타 종교인 0.9%, 비종교인 46.5%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 구성원간의 종교일치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설문 응답자와 부친과의 일치율은 50.5%, 모친과의 일치율은 62.0%, 배우자와의 일치율은

에 대해 설명을 드렸더니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전했다.

송 변호사는 또 "결혼 후 어머니는 며느리 절에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장모님은 사위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었다"면서도 "서로가 절이나 교회에 갈 때는 남은 사람이 가사를 담당해주면서 배려의 폭을 넓혀 왔다"고 '노후'를 소개했다.

한별정신병원 최훈동 원장도 부인과 의 종교 차이를 넘어선 경우, 최 원장은 "가족 공동의 생활에서는 각자의 종교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며 "가정 내 종교 갈등은 종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로를 배려해주는 마음만 있다면 종교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될

종교갈등 상담소	
한별정신병원	(031)986-9900
자비의 전화	(02)737-7374~6
생명의 전화	(02)763-9195
한국가정상담연구소	(02)567-8690
조계사 신행상담실	(02)735-1040
봉은사 새신자 전담부	(02)516-5651
구룡사 진리의 전화	(02)573-8072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정사목부	(02)754-5631

수 없다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은 "종교 갈등 해소에 왕도가 있겠느냐?"며 "서로 이

해하고 존중해주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미산 스님은 "다른 가족이 신앙하는 종교의 기념일에 절이나 교회, 성당에 함께 가서 서로 축하해주는 것이 상호 이해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신교 상담기관인 '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도 "가정 내 종교 갈등 해소에 대한 도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종교가 다른 가족의 종교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부터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한명우·노병철·유철주 기자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양주 경찰서 경승위원

실장 이재삼 왕산
부실장 중화사 용하

위원 대승사 귀영 천마사 청호
보문사 정오 보현사 석정
세광사 범화 석굴암 도일
지장사 원돈 반야사 청일
금륜정사 덕현

경승실 후원회 각사암 불자모임 일동

경기 양주시 회정동 84-7번지 양주경찰서 4층 경승실 ☎ 031)857-7755

감사의 말씀

삼보에 귀의하옵고,

지난 4월 15일부터 열흘간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열렸던 주지 오봉 도일스님의 선묵 서화전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원로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우선 지면을 빌어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회주 믿음 큰스님, 주지 철안 큰스님, 군중특별교구장 일면 큰스님, 포교원장 도영 큰스님을 비롯한 제방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종 보도와 후원을 통해 이번 전시회를 널리 알려주신 일반 및 불교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양주 오봉산 석굴암 신도회장 김원식 합장
전시준비위원장 진욱상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번지 031)826-3573 / 팩스 031)826-5838